김보연 "팜므파탈? 원래 사랑은 60대에 하는 것"

'결혼작사 이혼작곡'서 연기 인생 46년만에 악역 도전
"난 연기밖에 몰라…김혜자·윤여정 보며 용기 얻죠"
가수 되기 위해 방송국 입사…올해 새 음반 내고 싶어

"한 장면 나오더라도 외모로든 연기로든 가장 예쁘고 강렬하게 나오게, 시청자들이 저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계산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연기하죠."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이하 '결사곡')을 통해 연기 인생 46년 만에 처음 악역에 도전한 배우 김보연(64)은 4회 엔딩 한 컷만으로 단숨에 팜므파탈로 등극하며 작품 전체를 장악해버렸다.

수십 년 잉꼬처럼 살았던 남편 신기림(노주현 분)과 다정하게 영화를 보다 기림이 갑작스럽게 심정지를 일으키자 외면하고 슬픈지 기쁜지 모를 섬찟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었다. 동미는 이후 양아들 유신(이태곤)을 '남자'로 대하며 며느리인 사피영(박주미)과 대립한다.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에 버거운 스토리이지만, 김보연은 탁월한 완급 조절로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최근 용산구 한남동의 한 갤러리에서 만난 김보연은 "임성한 작가님이 오랜만에 글을 쓰셨다고 해서 4회까지 대본을 읽어봤는데, 4회 마지막에서 '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장면이었는데 다행히 방송 후 반응이 좋았다. 20대 때 대종상을 탔을 때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회차가 거듭할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본만 보면 동미는 단순히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이고, 양아들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끼는 미친 여자로만 보일 수 있었어요. 더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영화관, 수영장, 목욕 장면처럼 눈빛에 힘을 줘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주고 또 독백하는 장면에서는 동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득력 있게 들려주려고 노력했죠. 영화관 장면은 한 10컷으로 나누고, 영화 '라스트 모히칸'의 삽입곡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정도예요. 연기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그는 이어 "임성한 작가님이 나를 믿고 내가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대본을 써주신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보연은 스무 살 나이 차를 뛰어넘는 이태곤과의 로맨스 연기에 대해서는 "'태곤아, 미안하다, 다른 젊은 여자 스타와 해야 하는데'라고 한다"고 웃으며 "하지만 미안하면서도 좋다. 내가 또 언제 이런 걸 해보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원래 사랑은 60대에 하는 거예요. '결사곡' 메인 커플은 30, 40, 50대지만 30, 40대가 무슨 사랑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연기해요. '60대 연기의 맛, 사랑의 맛을 한번 알아봐라' 이러면서요. (웃음) 시대가 변했어요. 60대도 사랑할 수 있고, 노력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나이죠."

김보연은 그러면서도 동미와 유신의 관계에 대해 "동미는 유신을 정말 남자로 생각한다. 동미 인생에는 스무 살 많은 기림, 그리고 유신 두 남자만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유신을 이성으로 좋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반면 유신은 동미를 이성적으로 보진 않는다. 아버지 때문에 희생하고 살아서 잘해주고 싶은 여자일 뿐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막장'으로 보일 수 있는 이야기에 설득력을 불어넣는 김보연은 연기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성형은 안 하고, 소식하고, 운동 열심히 한다. 피부는 엄마를 닮아 좀 타고난 것 같다"고 웃었다.

지난해 KBS를 먹여 살린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이어 올해 '결사곡'까지 연타석 히트를 하면서 김보연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다. 두 작품이 결은 다르지만, 가족극으로 분류되는데 그는 "요즘 시대에는 '결사곡' 같은 일이 많다. 막장이 아니다. 한 30%는 현실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가족극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써주는 임 작가에게 고맙다"고 했다.

1976년 MBC 공채 탤런트 8기로 데뷔해 외모, 연기, 노래 등 모든 것을 갖춘 청춘스타로 큰 인기를 누렸던 그는 "연기밖에 모르고 연기가 가장 즐거운 사람이지만 날이 갈수록 역할이 줄어든다. 그래서 가끔은 포기하고 싶다가도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백상예술대상을 받으신 김혜자 선생님이나, 이번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언니를 보면서 용기를 다시 얻는다"고 말했다.

45년 전 김보연이 MBC 문을 두드린 이유는 의외로 가수가 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당시 여대영 MBC 악단장을 만나면 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탤런트 모집 공고가 떠서 지원했더니 1등으로 입사했다는 범상치 않은 스토리다. 그는 결국 여 단장 앞에서 이종영의 '너'를 불러 노래 실력을 인정받고 정식으로 음반도 냈다. 최근 MBC TV '복면가왕'에서도 가창력을 입증한 그는 올해 새 음반을 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요즘 트로트도 대세고 하니 깨끗한 노래 하나 불러보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도 참 조용했고 지금도 실제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연한 사람인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다른 사람이 되니 참 신기하죠. (웃음)" /연합뉴스

아이유·로제·제시…막강 여성 솔로 몰려온다

아이유, 25일 정규 5집 '라일락'
로제, 12일 솔로 싱글 'R' 공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여성 솔로 가수들의 컴백이 3월 이어진다.

가요계 최강의 '음원강자'로 꼽히는 아이유는 오는 25일 오후 6시 정규 5집 '라일락'(LILAC)을 발매한다.

아이유가 정규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2017년 정규 4집 '팔레트' 이후 약 4년 만이다.

아이유는 지난 1월 27일 정규 5집 수록곡 '셀러브리티'를 선공개하고, 최근에는 5집 음원 일부가 담긴 티저 영상을 잇따라 선보이며 컴백 예열에 나섰다.

이어 4일 앨범 제목과 발매일을 공식 SNS에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아이유는 발표하는 곡마다 막강한 대중적 지지를 받아왔다. 10년 이상 최정상 솔로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고, 자기 삶의 궤적이 투영된 노랫말로 공감을 끌어냈다.

아이유 정규 5집 '라일락' 티저

로제 'R' 티저 포스터

정규 5집 선공개곡 '셀러브리티' 역시 아이유가 노랫말을 썼다. '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 친구에게 '당신은 유일하고 아름다운 나의 셀러브리티'라고 말해주는 곡이다.

세계적 팬덤을 거느린 걸그룹 블랙핑크의 메인보컬 로제는 오는 12일 오후 2시(미 동부시간 12일 오전 0시) 첫 솔로 싱글 앨범 'R'을 공개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담아 그의 이름 첫 글자를 땄다"고 앨범명에 담긴 뜻을 설명했다.

피지컬 앨범은 오는 16일 발매되며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을 위해 CD, 한정판 LP, 키트(KiT) 총 3가지로 출시된다. 앨범 디자인에는 로제가 직접 참여해 영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블랙핑크 멤버의 솔로 출격은 2018년 '솔로'(SOLO)를 발매한 제니 이후 두 번째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첫 정규 앨범이 성공을 거두며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터라 멤버들의 솔로 데뷔도 국내외의 관심사다.

지난해 여름 '눈누난나'를 히트시킨 가수 제시도 오는 17일 신보를 발매한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최근 공식 SNS에 제시의 디지털 싱글 발매를 예고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신보 제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시는 지난해 7월 발매한 '눈누난나'로 SNS에서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는 등 사랑받았다. '눈누난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 수 94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나리' 개봉 첫날 4만명…박스오피스 1위

골든글로브 수상작인 영화 '미나리'가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미나리'는 4만명(점유율 50.6%)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박스오피스 1위 영화의 관객 수가 3만명대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준이다. 2위인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은 1만3천여명(18.7%)의 관객을 더하는 데 그쳤다.

3일 국내 개봉한 영화 '미나리'

미국 이민 2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연출한 영화는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남부 아칸소 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담백하게 그리며 호평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 양대 영화상 시상식인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첨단 돌솥 감자탕 산포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 061)332-6108

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 062)523-5885, 010-5665-0150

평강안마지압원
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
☎ 062)527-6664, 010-2645-66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밤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정,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 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 입찰 기타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보 광 세 탁 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암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사류
☎ 062)531-0331, 010-5511-0331

In.ssalon_sia
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법무사 김운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 법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본위
☎ 062)523-1003, 010-5355-0867

드림케어솔루션
동구 금남로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 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쌀(황미쌀)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